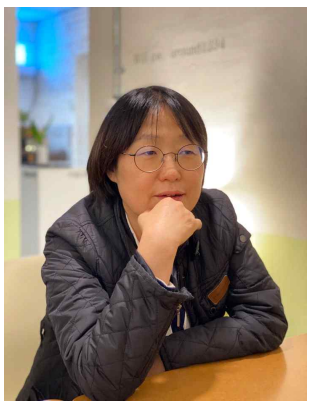
[첨부] 제11기 대표(단) 및 선출직운영위원 입후보자 경력사항 및 출사표

입후보자	경력사항
대표 입후보 최정화 	• (사)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제10기 현 대표 • 2020년 현재 (주)문샷필름 대표 • 2016년 <밀정> 프로듀서 • 2013년 <런닝맨> 프로듀서 • 2011년 <최종병기 활> 제작관리 • 2006년 <중천> 프로듀서 • 2003년 <영어완전정복> 프로듀서
부대표 입후보 김정석 	• (사)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제10기 현 부대표 • 2020년 현재 (주)고잉픽쳐스 대표 • 2020년 현재 (사)한국영화디지털유통협회 대표 • 2016년 <용순> 공동제작 • 2016년 <우리 손자 베스트> 제작, 배급총괄 • 2015년 전 (주)인디플러그 대표 • 2015년 <설행 눈길을 걷다> 배급/마케팅 총괄 • 2014년 <들꽃> 제공/배급 • 2014년 <오늘영화> 프로듀서
부대표 입후보 강원숙 	• (사)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제10기 운영위원 • 영화진흥위원회 제7기 위원(2017년 10월 ~ 2019년 12월) • 타임와이즈인베스트먼트(주) 전 수석심사역 (재직중 150여편 약 750억원 프로젝트 투자) • '스타트업코리아, KVIC 2014' 문화부문 최우수심사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 • 메인투자/관리 : <누구에게나 찬란한>, <심장이 뛴다>, <동갑내기과외하기>, <조선남여상열지사-스캔들>, <무사> 등 다수 • 제작/기획 : <잔혹한 출근>, <내 생애 최악의 남자>

출사표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PGK 10기 대표 최정화입니다.
지난 2년간의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공교롭게도 근로기준법의 개정과 저의 임기가 비슷한 시기에 맞물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대한 이해와 여기에 맞는 계약서의 개선, 그간의 관행적인 계약형태의 변화 촉구 등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던 2년이었습니다.

설명회를 통하여 개정 근기법을 안내하고 수많은 일 대 일 상담전화를 통하여 많은 대화를 나누었지만 아직도 여전히 미진함을 지울 순 없습니다. 2년간의 노력과 요구를 통하여 새롭게 게시된 표준계약서 역시도 여전히 만족스럽진 못합니다. 대형 법무법인, 건강검진병원, 세트장 등 여러 기관과의 MOU를 통하여 회원 여러분들의 작품이나 생활에 도움을 드리려고 많은 노력과 활동을 하였으나 그 결과 역시 만족스럽진 못합니다.
이렇게 만족스럽지 못한 상태에서 벌써 2년이란 시간이 흘러가고 임기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저보다 더 뛰어나고 열심이신 회원님들께서 차기 집행부를 맡아 더 나은 PGK로 매진하여야 함이 당연하겠으나 부족함이 있더라도 회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년의 시간을 더 투자하여 보다 나은, 보다 실효적인 PGK를 만들어 나가 보겠습니다.

조합의 최우선 가치는 소통입니다. 소통의 기반위에서 발전도 있고, 반성도 있는 것입니다.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생각하였으나 여전히 부족함이 느껴집니다. 보다 나은, 원활한, 실질적인 소통을 위하여 더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PGK는 어느 덧 한국영화계의 중추적인 영화단체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결코 어딘가의 눈치를 보거나 우리만의 아집을 내세우지 않고 한국영화의 가장 중요하고도 변별력 있는, 영화계 모든 구성원들이 기대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최우선의 가치는 우리 조합원 여러분들에게 있음은 당연합니다.

프로듀서가 사는 길이 곧 한국영화가 정상화되는 길이라고 하겠습니다. 산업의 논리와 예술의 논리, 고용주의 논리와 피고용자의 논리 등 자본의 참여가 필수적인 영화산업에서 부익부 빈익빈이 아니 모두가 행복하게 영화를 만들 수 있는 권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한 편의 영화를 만들기 위해 그 문을 열고, 또 그 마지막 문을 닫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프로듀서들입니다. 영화제작의 최전선에서 오늘도 묵묵히 자신의 소명을 다하는 우리 프로듀서들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영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2020년 01월 17일

제11기 대표단 후보 최정화, 김정석, 강원숙 배상